

韓,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 다진다

정부 “IPEF 연내 타결 이뤄낼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
“내달 2차 협상서 큰 역할 할 것
올해 EPA 10개 이상 체결 목표”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내 타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PEF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데 우리가 통상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IPEF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뛰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이 1차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고 오는 2월 2차 협상에서 상당한 구조(규범 등)가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 진행중인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세 통상의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IPEF 1차 협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해 분야별 규범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경제동반자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20개를 체결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더 할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이 다변화한 공급망 전략을 갖고 산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결국 전 세계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공백이 있던 지역에 최대한 통상 역량을 강화해 통상 중추국가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FTA를 많이 체결한 곳,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기도 하고 EPA도 어려운 국가는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시장개방을 빼고 나서 실

질적 협력 관계를 늘리는 작업도 한다”며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세계 플랫폼을 만들어 아시아 메이저 국가들이 국내에 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와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조금 자제하려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영토를 넓혀 좋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경제국 침탈을 당한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FTA로 무역 흑자를 늘렸지만 상대국은 수탈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통상부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에서 교역과 생산 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나 경쟁력 비중이 낮은 국가가 없다”며 “과도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이 환율의 평가절하보다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어렵지만 1분기에 상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보, 기술이전 中 企 ‘기술거래 사업’ 지원

40개사 선정… 내달 16일까지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 중소기업 40개사를 발굴해 기술거래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총 3차에 걸친 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심



기보 본점 전경.

층평가를 통해 40개 기업을 선정, 이 전기술 사업화가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과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지식재산권)인수보증 연계와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 최대 1억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통합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이전기술의 상용화에 발생하는 간극 해소와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내부.

/울산시

울산, 제조·디자인 ‘시너지’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개소

5년동안 10억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
디자인 상담·홍보, 무료로 제품촬영
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16일 울산대학교 공장형실험동에서 서정욱 행정부시장,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재석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윤상흥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산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서울센터 구축 이후 7번째 설치한 시설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중소 제조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지역 제조기업을 위한 디자인상담과 수요맞춤개발, 홍보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무료로 제품촬영,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 내 공장형실험동(666.05㎡(200평))에 위치한 울산센터는 색상·소재·마감을 뜻하는 시엠에프(CMF - Color, Material, Finishing) 표본을 전시한 자료관, 전문 사진·영상 촬영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1998년 항공기 모형실험, 홍수 현상이나 댐 및 항만의 모형실험 등을 위해 구축한 공장형실험동을 제조기업 혁신을 위한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로 탈바꿈시켜 의미가 더욱 깊다.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지역제조기업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로 산업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매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예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가루쌀’ 활용 신제품 개발 식품업체 지원

농식품부, 내달 3일까지 공모

정부가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참여할 식품업체를 모집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건식제분이 가능해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일반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정부는 가루쌀을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39개소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추후 200개소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올해 생산된 가루쌀 전량은 공공비축미로 정부가 사들인다.

이번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



가루쌀로 만든 블루베리 쌀쉬폰.

/농식품부

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쌀가루나 밀가루 사용실적이 연평균 100톤 이상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는다. 업체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3억2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목표, 밀가루 대체 효과, 상품화 가능성, 업체의 연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대폭 정비… 354억 투입

부산항 등 8개 항만 시설 정비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등 설치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4년까지 354억원을 투입해 국가관리항의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전국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32개 지방관리항 시설물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록 통보했다.

국가관리 24개항의 경우 올해부터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강화한 안전기준이 적용된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사업은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조명시설,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한남노·난마돌 태풍 피해가 있었

던 부산항 등 8개 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2024년에는 군산항 등 나머지 16개항에 204억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항만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